

# 이찬 시의 환상성 연구

허갑순\*

## || 차례 ||

- I. 머리말
- II. 환상의 이론적 배경과 환상문학
- III. 이찬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환상성
- IV. 현실 일탈로서의 환상성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이찬 시에 나타나는 환상적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이국적 취향의 환상과 현실 일탈로서의 환상적 공간의 시에 주목하였다. 이 작품들은 모더니즘적 성격과 고향을 상실하고 떠도는 유랑의식을 비극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 비판적 자아의식이 결여된 ‘도피적 태도’라는 비판도 받았다. 본고는 이 작품들의 해석 및 분석을 통해 환상성에 내재된 현실과 환상간의 은밀한 교호작용을 밝혀보고자 한다.

19세기에 환상은 리얼리즘 소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환상은 주요 서사의 흐름 속에 보편적인 자리를 차지했으며, 현대 문학 속에도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캐스린 흠에 따르면, 환상은 등치적 리얼리티로부터의 일탈로 이는 곧 문학 본래의 충동으로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환상은 괴물에서 은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환상 문학은 1920년대 낭만주의 문학에서 엿볼 수 있으나 그보다도 일제 강점기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환상적인 시들에서 그 맥락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적 시대적 상황은 억압되고

---

\*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강사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일탈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상을 어떤 특정한 시대나 작가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해방 전후에 활동했던 여러 시인의 시편에서도 환상과의 조우를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찬의 시에서 환상성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시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도저한 유토피아에 대한 감상 때문이다. 이런 시인의 태도는 현실적 자아 의식이 결여된 심미적인 세계로 도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시가 보여주는 환상의 양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찬 시편이 환상문학의 압도적인 기이함 등을 표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때로 각박하고 비참한 현실의 배후에는 한 인간의 농밀한 아픔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이찬, 환상성, 유토피아, 현실.

## I. 머리말

환상 또는 이와 관련된 표현이 우리 문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시에서도 산문화 현상이 생긴 것과 궤를 같이 해서 소설에서도 거대담론이 사라지고 사소한 개인의 주변사 또는 가시적 현실을 떠난 환상의 세계가 소설가의 영감을 자극하였다. 이는 ‘판타지 소설’로 부르는 일군의 작품들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환상문학’ 또는 ‘환상성’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서구의 환상문학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990년대 이후 우리에게 목도되고 있는 현실이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환상성은 시적 설득력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환상시에서 유효한 현실은 날것 그대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현실태가 아니다. 그보다 현실/비현실, 현실태/가능태, 확정성/불확정성 등으로 대립되는 세계의 경계로 들어가 파리를 튼 것이야말로 환상

시가 포착한 현실일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환상성을 담고 있는 환상시 또는 환상적인 시의 가능성을 이론과 실제에서 탐구하는 연구들<sup>1)</sup>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환상시의 출현은 1980년대와 그 시대적 성격이 확연히 다른 1990년대의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문학사적 가치”<sup>2)</sup>를 지닌다.

환상은 우리 시대와 문학을 이어주는 하나의 코드로 작용하면서 우리 문학계에 탈근대적인 대응 양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상을 특정한 시대적 맥락과 인식의 단면을 지시하는 하나의 기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은 보편성이 아닌 특수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환상이 어떤 특정한 시대나 작가에 국한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해방 전후에 활동했

- 1) 박호영, 「장만영 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국어교육』 제113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 이창민, 「환상시론의 이론적 전제」, 『돈암어문학』 제16집, 2003.
- 이창민, 「한국 현대의시 환상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집, 우리어문학회, 2004.
- 이형권, 「발명되는 감각들」, 『시작』, 2006년 겨울호.
- 박상수, 「2000년대 한국시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와 전망-환상의 정신분석적 독법」, 『한국문예창작』 통권 제11호, 한국문예창작회, 2007.
- 김정란, 「김종삼 시 연구:소리 이미지와 환상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주영, 「오장환 시 연구:탈식민주의적 저항성과 환상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장동석, 「김종삼 시에 나타난 ‘결여’와 무의식적 욕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6집, 창조문학사, 2008.
- 석연경, 「이상 기의 환상성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나희덕, 「세태소설론」,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 이성민, 「김종삼 시의 환상성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 김도희, 「한국 전후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오현주, 「문학치료에서의 환상성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 이승하 외, 「현대시의 풍경, 그 다원성의 미학」, 『한국 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 2005, pp.410-412 참조.

던 여러 시인의 시편에서도 환상과의 조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이찬 시 연구에서도 이제 ‘환상’이라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찬 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회고적 감상주의”<sup>3)</sup>, “현실주의적 흐름과 비판적 낭만성”<sup>4)</sup>, “낭만성과 비극성”<sup>5)</sup>, “혁명적 낭만주의”<sup>6)</sup>, “도피적 낭만주의”<sup>7)</sup>, “낭만적 열정”<sup>8)</sup>, “비극적 초월”<sup>9)</sup> 등 주제별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하지만 시대적 격변기를 통과한 이찬에 대한 연구는 그의 다채로운 시세계에 비해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편이며, 주로 ‘감상성’과 ‘낭만성’에 기대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찬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sup>10)</sup>, 남북분단, 북한의 국민시인 등을 몸소 체득한 생생한 증인으로써 함몰하다시피 한 통일문학사의 한 장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3) 임화, 『세태소설론』, 『문학의 논리』, 서음출판사, 1989, p.377. 참조 임화는 이찬의 시적 영역의 신변잡사적 한계로의 퇴각과 영탄적 운율을 지적하고 이런 곳에는 진실한 낭만주의 대신에 감상주의가 자리잡기 쉽다고 말하고 있다.

4) 신범순, 『이찬론:현실주의적 흐름과 비판적 낭만성』, 문학사상, 1989.3, p.92.

5) 유성호, 『이찬시의 낭만성과 비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연구』, 2010.

6) 박승희, 『이찬 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7) 김승교, 『이찬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07.

8) 오문석, 『1920~30년대 프로시론의 전개과정』, 『근대시의 경제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7, p.29.

9) 허갑순, 『이찬 시 연구: 시간과 공간인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0)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이 처음 신화적인 이야기를 창작했던 것은 제 1차 세계 대전 동안이었으며 전쟁은 톨킨의 작품에서 중심적인 주제였던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전쟁이 얼마나 쉽게 환상문학 작품을 낳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무척 흥미롭다고 말하고 있다. (푸랑수아 레이몽와 다니엘 콩페르, 고봉만 외 역, 『환상문학의 거장들』, 자음과 모음, 2001, p.16.

## II. 환상의 이론적 배경과 환상문학

환상(fantasy, fancy)은 일반적으로 현실로부터 벗어난 것, 비합리적인 연상 작용 속에 속하는 것들이 모두 환상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 사회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등치적 리얼리티라 부르는 나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로 파악하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특권적 환상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모방하기 위해서였으며 환상의 가장 주된 기능으로 작용한다.

로제 카이유아는 “환상은 현실 세계의 견고함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견고함을 더 잘 파괴하기 위해서인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으며, 민속학자 레비-브뤼일은 경이에 대한 욕구로, 샤를르 그리벨은 믿음에 반하는 것을 참된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로테스크함을, 『환상문학 대선집』의 저자들인 자크 구아마르와 롤랑 스트라글리아티는 “문명화된 현대인을 그 자신의 상상력, 그 자신의 무의식과 조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파악하고 작가는 우리의 방어를 잠재우고 우리의 확신들을 속이며, 점진적으로 회의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련의 수단들이다. 라고 환상의 기능을 설명하였다.<sup>11)</sup>

츠베당 토도르프는 환상문학의 조건으로 소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환상성은 경이로움과 기괴함 사이의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독자 혹은 작중 인물의 ‘망설임’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독자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느낌(망설임)이 바로 ‘환상성’으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관계가 바로 환상문학의 장르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시적 독해와 우의적 독해인 알레고리적 해석을 거

11) 푸랑수아 레이몽와 다니엘 콩페르, 고평만 외 역, 『환상문학의 거장들』, 자음과 모음, 2001, p.14-15.

부해야 한다며 비재현적 문학 장르인 시에서는 환상성을 유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2)</sup> 그는 환상이 실현되기 일보 직전에 정신분석학적 기능에 의해 그 힘을 잃고 무용한 것이 된다고 보았다.<sup>13)</sup> 반면에 바레네체이는 보르헤스의 시를 예로 환상적인 시의 존재를 주장하며 토도르프 이론을 수정했고 브록로스 또한 시와 알레고리도 환상문학의 경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14)</sup>

로지매리 잭슨은 환상이 “문학적 속박으로부터 야기된 결핍을 보상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욕망에 관한 문학으로서 부재와 상실로 경험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환상성의 가치를 현실에 대한 ‘전복적 상상력’으로 보고 환상문학이 사실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전복하려는 사실주의 문학의 타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실적인 이면의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것이므로 사실주의 문학보다 더 개혁적이면서 전복적인 힘을 지녔다고 보았다.<sup>15)</sup>

캐스린 흠<sup>16)</sup>은 문학은 두 가지 층동의 산물로 하나는 ‘미메시스’이고, 다른 하나는 ‘환상’으로 파악하였다. 전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뾰족함과 함께 사건·사람·상황·대상을 묘사하려는 욕구라면, 후자는 ‘권태로부터의 탈출·놀이·환영·결핍된 것에 대한 갈

12) 고영일, 『환상문학의 이론적 고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1집,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00, p.244 참조.

13) 윌리엄 모리스 외 더글러스 A, 애더슨, 김정미역, 앞의 책, p.16.

14) 바레네체이는 알레고리 작품들도 환상으로 볼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의 대비가 비문제적으로 제기되는 경우를 ‘환상적’으로 파악하였고, 비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의 대비가 비문제적으로 제시가 된 경우를 ‘일어남직한 것’이라고 구분하였다.(문홍술, 『환상문학과 탈근대, 그리고 동일성의 세계』, 시와 사람, 2005, pp.98-100 참조)

15) 로지매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pp.14-16.

16) 캐스린 흠,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앞의 책, p.55.

망·독자의 언어 습관을 깨뜨리는 은유적 심상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떤 작품은 환상이고, 어떤 작품은 미메시스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환상과 미메시스라는 충돌은 많은 장르와 형식 속에서 특색 있게 혼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환상이 지닌 ‘전복성’을 주장했던 로지매리 잭슨과는 달리 환상을 ‘등치적 리얼리티’로써의 일탈로 파악하였다.

윤지영<sup>17)</sup>은 시는 원래 환상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환상을 거론하는 일은 가능하나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시와 환상의 장르가 구조상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토도로프와 견해와 같이 환상을 허구 또는 소설의 하위 장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시를 대상으로 환상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상력의 창조적 산물로써 예술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권혁웅<sup>18)</sup>에 따르면 환상이 표현하는 것은 구성된 현실이 아니라 이 실재로서의 현실로 보고 환상을 단순히 현실의 부정 즉 비사실적인 것들의 집적이라고 정의하면, 구성된 현실을 강화하는 단순부정의 세계에 빠지고 만다고 보고 있다. 즉 외상이 상징화될 수 없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은 실재계이며 주체의 중심에 자리 잡은 영속적인 어긋남(dislocation)이라는 것이다. 외상의 경험은 실재계라는 것이 상징계 또는 사회현실 내부로 결코 흡수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는 언어를 통해 변형될 수 없는 잔여가 언제나 남아있다. 라캉이 ‘X’라고 부르는 이 “초과분(excess)이 바로 실재계”<sup>19)</sup>이다. 환상은 이 실재의 표면에서 생겨나지만 실재계와

17) 윤지영, 『환상적인 시와 ‘환상시’의 가능성』, 앞의 책, pp.160-191.

18) 권혁웅, 『환상: 환상의 영역을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시론』, 문학동네, 2010, pp.564-565.

19) 손 호머, 김서영 역,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6, pp.156-157 참조.

조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을 직접 마주칠 수는 없으며, 다만 그것의 불가해한 표면인 환상과 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라캉은 “환상의 기능이 프로이트에게 드러”<sup>20)</sup> 난다고 규정하고 프로이트는 실재를 바로 ‘투케’와 ‘오토마톤’의 저 너머에 위치하며 항상 오토마톤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라캉은 프로이트가 첫 만남과 환상 뒤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실재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면서 결국 그의 욕망, 현존, 열병 등이 환자의 정신병적인 징후들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반복과 전이를 분리 시켜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전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림, 부재와의 관계처럼 주어지며, 전이와 관련된 현실의 이 모호함은 반복에서 실재가 담당하는 기능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해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기숙<sup>21)</sup>은 환상이 기존의 질서나 경계를 해체하고 이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인식형태로 근본적으로는 의식의 경계 해체를 의미하며 망설임, 모호성, 인식의 균열 등으로 체험된다고 하였다. 또한 텍스트 내에서 낯선 존재나 세계가 등장하는 경우, 혹은 완결된 가상의 세계를 구성하는 경우 환상은 그 자체로 새로운 세계인식, 우주론에 관한 창조를 통해 현실을 확장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상 세계에 대한 환상으로서의 유토피아를 현실 세계를 모방한 대안적 이상 세계에 대한 제시로 보았다. 이러한 세계 모형은 체험자의 주관적 세계 이해가 반영되며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공 언어도 탄생된다

20) 자크 라캉, 맹정현·이수연 역, 『투케와 오토마톤』,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 p.88. ‘투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인에 관해 연구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며, 그것을 ‘실재(와)의 만남’으로 번역하였고, ‘오토마톤’은 기호들의 회귀, 재귀, 되풀이로 우리 자신의 쾌락원칙의 명탕 아래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21)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고 보았다. 그러므로 문학에서 환상은 현실적으로 부재하지만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욕망이 가시화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욕망은 충족 도피의 형태를 허용함으로써 실체를 긍정하고 그에 따른 대리적 해소를 지향하며, 현실이 억압되고 은폐되었던 세계 혹은 그 구성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현실적 질서에 저항하고 그에 다른 전복을 겨냥하는 방식이다. 현실에서 환상이 드러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억압되었던 욕망들을 충족 혹은 도피의 형태로 허용함으로써 욕망의 실체를 긍정하고 그에 대한 대리적 만족을 지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실이 억압하고 은폐 했던 세계, 혹은 그 구성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현실적 질서에 저항하고 그에 대한 전복을 겨냥하는 방식이다. 특히 후자의 방식은 공포와 전율의 심리적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현실적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도한다고 보았다.

노철<sup>22)</sup>은 판타지에는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며 우리 내부에서 배제된 타자성의 탐구와 불확정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환상은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 불확정적으로 위치하여 가상이면서도 현실을 뒤흔들고 신화나 전설, 과학 등의 흔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 내부의 광기나 잔혹성은 문명화된 질서에 타자로 존재하는데, 타자성의 회복은 문학의 기법으로 낫설기 하기에 가깝다고 본다. 몸과 의식의 불일치 속에서 인간은 늘 결핍을 경험하게 되므로 현실의 시공간에서 벗어나 몸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이다. 판타지 문학의 구체적 형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각 사회의 맥락에 의해 구성되고 생산되며 늘 현실을 보충한다는 견해는 환상의 형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증명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논의들은 시에 있어서 환상성은 연구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

22) 노철, 『판타지 문학의 타자성과 불확정성』, 문학마당, 2005.

하고 있다. 환상은 결핍에 의해 발생하여 불확실한 현실에 불확정적으로 나타나기에 망설임을 수반하지만 타자의 귀환과 더불어 탈권력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찬 시를 대상으로 환상성을 연구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와 환상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어온 기존의 연구 성과에 기대면서도 약간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는 이찬의 시가 낭만적 상상력에 의한 창조적 산물로서, 모방 충동과 환상 충동 양쪽을 수용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환상 충동이 강한 즉, 환상성이 전경화 된 시를 대상으로 이국적 공간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시를 ‘환상적인 시’로 명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찬의 환상적 공간이 타 예술 장르와의 결합 또는 전도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다른 시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환상성과는 다른 지점에서 이찬 시의 환상성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그의 다채로운 시세계의 한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앞으로 계속될 시와 환상성과의 연구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Ⅲ. 이찬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환상성

미학의 전 역사에서 환상은 부정의 자식이었다. 사람들은 규정되지 않는 것, 실재하지 않는 것,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가능하지 않는 것을 환상으로 규정하였다. 사실성(reality)의 건너편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있음(實)’이 아닌 ‘거짓 있음(幻)’이 환상(fantasy)의 자리였다. 그러나 사실의 영역은 분할된 그때부터 침입을 당해왔다. 사실 아닌 것을 배제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실이란 결국 사실 아닌 것의 도움을 받아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상의 부정성은 실천의 다른 이름이다. 환상은 삶의 체계와 욕망의

체계, 지식의 담론과 정념의 담론이 위장하고 은폐하는 지점들을 지시한다. 환상이 표현하는 것은 구성된 현실이 아니라 이 실재로서의 현실이다. 환상의 전복적인 힘은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할 때에야 발휘된다. 23)

    밀물처럼 추위는 밀려들고 가없는 기인 겨울이 애처른 내 화초의 아련한  
    꿈길조차 앓으련도다

    나의 사람아 어서 아늑한 그 품속 다사로운 네 온실의 문을 열어라

    너의 말가니 닭은 영창은 양지바른 남으로만 향하고

    눈나희 사나운 동북(東北)은 항상 짙은 커튼 뒤에 숨겨다우

    < ... >

    언제이고 오고야 말 다양한 봄날 다시 파릇한 잎이 꽃봉오리를 붙으면

    별나비 나래도 화려할 그 기다림이 즐거웁지 않느냐

    믿어다우 나의 사람아 믿어다우 그대 오늘의 고뇌 결코 헛되지 않을

    그날 아침을

    -「나의 사람아 네 온실의 문을」부분<sup>24)</sup>

위의 인용시에서 시적 화자는 ‘온실’의 외관을 남쪽으로 향한 양지바른 “너의 말가니 닭은 영창” 으로 묘사하였는가 하면, 내관은 “아늑한 그 품속 다사로운”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추위는 밀려들고 가없는 기인 겨울이 애처른 내 화초의 아련한 꿈길조차 앓”아 갔다는 현실이 염연히 존재하고 있다. 슬라보예 지젝<sup>25)</sup>에 따르면, 시적 상상력이란 모든 형상들을 서로 뒤섞어 놓는 자유를 누림으로써 미술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동시

23) 권혁웅, 『환상: 환상의 영역을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위의 책, pp.563-565 참조.

24) 이동순·박승희 편, 『이찬 시 전집』, 소명출판, 2003, p.209.

25) 슬라보예 지젝, 대니 노부스편, 문심정연역,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들』, 문학과 지성사, 2013, p.231.

에 어떤 일상 혹은 관습의 세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시에서 ‘환상’이란 기괴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측면보다는 현실과의 접점에서 그 고통을 은폐하면서 ‘온실’을 지향하는 유토피아적 환상성을 변형적으로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방적 재현보다는 환상적인 변형을 통해 ‘다른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이찬은 현실 일탈적이고 환상적인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한 창조적 과정을 통해 시적 화자는 겨울이 길어서 애처른 내 “화초의 아련한 꿈길”조차 빼앗겨버린 현실을 벗어나서 현실의 가파름을 넘어, 극서 너머에 있는 ‘다른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온실’의 이미지야말로 일제 강점기의 냉혹한 현실로부터 유리된 가상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엔 동시에 현실의 결여 혹은 폭력적 상태에 대한 우회적, 방법적 비판의 함의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과 전체, 욕망과 현실, 행복과 이성의 화해를 추구한다. 이러한 조화는 기존의 현실원칙에 의하여 유토피아란 피안의 세계로 추방되었지만 환상은 그러한 조화가 현실이 되어야 하고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상이 형식을 갖추어 적대적인 인간 현실에 조화와 화해를 실현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구체적인 형식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찬 시편의 또 다른 지향은 이러한 유토피아란 피안의 세계를 꿈꾸면서 새로운 세계를 그려내고자 하는 ‘환상’에 의해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찬 시인은 “다양한 봄날 아침”이 “언제이고 오고야” 만다는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고 ‘아늑한 온실’과 ‘양지 바른 남쪽’을 지향하는 유토피아적 환상성을 구현하고 있다.

퇴색한 사보- 르 이지러진 석계(石階)를

목메어 흐르는 손풍금은 어느 에미그란트의 못잊을 향수나

<... >

어젯밤 카바레·호놀루루의 그 젊은 에드랑제를  
너는 왜 너의 조국처럼 다시 찾을 수 없고

<... >

영원한 농무 속에 기다스카야가(街)  
출범 모르는 송가리의 고풍한 요트여

<... >

쏘-니아 너는 아직도 클래식·뮤직을 좋아한다지  
가렴. 어서. 카페·몬테룬의 밤은 밤에만 있지 않느냐

-『하얼빈』부분<sup>26)</sup>

위의 인용시에서 낯선 “에드랑제” 즉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카바레·호놀루루”는 그 자체로 현실 가운데 있는 공간이기보다는 화자가 인위적으로 선택한 이국적이고 낯선 공간이다. 이곳 ‘호놀루루’는 밤이 되면 젊은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손꼽음이 연주되는 향수를 느끼게 하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다. 그러나 이 카바레 ‘호놀루루’는 “퇴색한 사보- 르 이지러진 석계(石階)” 옆에 있다. ‘카바레·호놀루루’는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오아후의 휴양지이며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물론 농무가 끼어서 앞으로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리인 ‘기다스카야가(街)’는 러시아에 있는 변경에 있는 한 거리이면서 인근에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중국의 한 도시 ‘하얼빈’과 경계에 있다. 노철은 판타지 문학의 구체적 형태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각 사회의 맥락에 의해 구성되고 생산되며 늘 현실을 보충한다는 견해는 환상의 형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증명되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찬은 조국 식민지 현실의 가파른 벽을 “너는 왜 너의 조국처럼 다시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쏘-니아 너는 아직도 클래식·뮤직을

26) 이동순·박승희 편, 위의 책, p.192.

좋아한다”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내보이면서 암울한 식민지 사회의 단면을 형상화한다. 이는 암담한 식민지 현실을 ‘클래식·뮤직’이라는 음악으로 보충하려는 환상의 형태적 변화의 양상으로 파악된다.

미국과 러시아, “출범 모르는 승가리<sup>27)</sup>의 고풍한 요트”와 “영원한 농부 속에 기다스카야가(街)”, 식민지 조국과 중국, 하얼빈의 얼어붙은 겨울밤, 이국 손님들을 상대로 춤을 추는 ‘쏘-니아’지만 ‘아직도 “카페·몬테룬”의 클래식·뮤직을 좋아하고 ‘낯선 이방인’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손품금이 흐르는 ‘카바레·호놀루루’는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유토피아적 환상성을 변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최기숙은 텍스트 내에서 낯선 존재나 세계가 등장하는 경우, 혹은 완결된 가상의 세계를 구성하는 경우 환상은 그 자체로 새로운 세계인식, 우주론에 관한 창조를 통해 현실을 확장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상 세계에 대한 환상으로서의 유토피아를 현실 세계를 모방한 대안적 이상 세계에 대한 제시로 보았다.

#### IV. 현실 일탈로서의 환상성

이찬의 시 중에는 시적 대상들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들이 있

---

27) 승가리는 송화강을 의미하며 이 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흘러 눈강(嫩江)과 합류하여 아무르(Amur)강으로 빠지는 강이다. 아무르강은 러시아(구 소련) 연방 시베리아 남동부에서 발원하여 중국 동베이(동북(東北)의 국경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 타타르 해협으로 들어가는 강이다. 유의어로 헤이룽 강 또는 흑룡강으로 부르기도 한다. 18세기부터 헤이룽 강 북쪽 지역에 우크라이나인·벨라루스인·타타르족·라트비아인, 유럽권 러시아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과 함께 러시아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헤이룽 강 남쪽에는 한족·몽골족·만주족 및 다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다. <daum 백과사전>

다. 그 대상들은 주로 우리에게는 낯설은 것, 이국적인 것, 먼-곳을 그리워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아오던 사물들만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져 있음으로써 신비한 베일에 쌓여있기도 하고 우리의 상상과 환상 속으로 들어와 문학이나 음악, 그림 등 예술로써 육화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많은 대상들이나 장면들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경험 세계를 확장한다고 해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무한한 사상(事象)들의 극히 미세한 일부분에 다름 아니다. 비현실적이면서도 무한한 정신 활동인 환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하면서 실재하지 않는 대상들을 등장시켜 현실을 보다 풍부하게 조율해준다. 환상은 우리에게 위안과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매개체로서 현대사회에서 환상의 기능은 인간 존재 자체가 소외되거나 무기력해질수록 더 큰 역할을 감당한다.

<... >

동·호 - 세

너는 슬퍼하지 않아도 좋다

너는 격(激)하지 않아도 좋다

너의 연인은 칼멘 아닌 칼멘

죄없는 썬타루치아의 저도 몰래 지나며 흘린 한낮의 꿈이 아니었느냐

돌아가거라 너는

고향으로 가거라 나바라로 가거라

고대할 어머니의 그 꿈을 위하여

투우장으로 가거라 세비라로 가거라

빛나는 도레이돌 그 명예를 우하야

<... >

어서 다오 나에게 동·호 - 세

아하 불타는 열사(熱砂) 열사의 이 사장(砂場)을

차-단 한 계집아이의 선혈로 식힐 영광을 나에게 다오

-『싼타루치아』부분<sup>28)</sup>

위의 인용시에서도 ‘싼타루치아’는 자체로 현실 가운데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화자가 인위적으로 선택한 이국적이고 낮은 공간이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스페인의 세비리를 배경으로 탄생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이찬은 지역적으로 우리와 ‘머-언곳’에 떨어져 있는 물의 도시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스페인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와 대비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오페라 속의 주인공의 삶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이국의 풍경 속 오페라 ‘카르멘’의 주인공들의 삶과 시적 화자의 삶에서 일종의 동질감을 호소한다. 그는 ‘칼멘’, ‘동·호-세’, ‘피가로’를 통해 환상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배반과 응징 그리고 화해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케스린 홈은 문학에는 두 가지 충동의 산물로 ‘미메시스’와 ‘환상’으로 파악하였다. 전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핏진감과 함께 사건·사람·상황·대상을 묘사하려는 욕구라면, 후자는 ‘권태로부터의 탈출·놀이·환영·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독자의 언어 습관을 깨뜨리는 은유적 심상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떤 작품은 환상이고, 어떤 작품은 미메시스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환상과 미메시스라

28) 이동순·박승희 편, 위의 책, p.214.

는 충동은 많은 장르와 형식 속에서 특색 있게 혼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환상이 지닌 ‘전복성’을 주장했던 로지매리 잭슨과는 달리 환상을 ‘등치적 리얼리티’로써의 일탈로 파악하였다.

이찬은 암울한 조국의 식민지 현실에서 빠져나와 물의 도시인 썬타루치 아를 무대로 펼쳐지는 오페라 ‘카르멘’의 주인공을 통해 현실을 일탈하려는 환상성을 구현하고 있다.

<... >

바람도 잡자는 오렌지빛  
늘어진 야자수 조르는 그늘 속에  
가림없는 알몸뚱일 거리낌없이 내던지고  
빠나나·코코아·올리브·파인애플의 훈훈한 향기에 쌓여  
그윽한 무아(無我)의 꿈을 맺어보고 싶다.

아 퍼플색 황색이 창백한 달밤을 가져오면  
다한(多恨)한 슬라이·기-타 미끄러지는 음율에 젖어  
깜둥이 계집아이의 뜨거운 햇바닥을 훑으며  
자지러지는 포옹과 미칠듯한 춤으로  
맘껏 내 청춘을 불태워보고 싶다

아하 내 마음 울울할 때  
휘파람블며 더듬어 가고픈 곳  
머언 열대의 나라  
그리운 그리운 지역

-「그리운 지역」전문<sup>29)</sup>

29) 이동순·박승희 편, 위의 책, 2003, p.149.

위의 인용시에서 시적 화자는 “열대의 그 나라”를 보고 있다. ‘열대의 그 나라’는 멀리 적도의 한가운데에 있고, 바람도 잠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화사한 “오렌지빛”으로 빛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곳은 “늘어진 야자수 조이는 그늘 속”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리고 “빠나나·코코아·올리브·파인애플의 훈훈한 향기에 쌓여”진 그 나라는 “그윽한 무아(無我)의 꿈”을 꿀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마음 울울할 땐” 언제든 “휘파람 불며 불며 더듬어 가고 싶”은 환상적인 공간이다. 그 환상적인 공간에서 시적 화자는 “퍼플색 황색이 창백한 달밤 가져오면” 그 달빛에 취하여 한이 많은 “슬라이·기-타 미끄러지는 음울에 젖어”서 “자지러지는 포옹과 미칠듯한 춤”을 추면서 우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을 시로 형상화 하였다. 이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인의 욕망이 담겨져 있다. 시인은 당면한 현실에서 일탈하기 위해 ‘자지러진 포옹’과 “꿈둥이 계집아이의 뜨거운 햇바닥을 활”고 싶은 것이다.

권혁웅은 환상이 표현하는 것은 구성된 현실이 아니라 실재로서의 현실로 보고 환상을 단순히 현실의 부정 즉 비사실적인 것들의 집적이라고 정의하면, 구성된 현실을 강화하는 단순부정의 세계에 빠지고 만다고 보고 있다. 즉 외상이 상징화될 수 없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은 실재계이며 주체의 중심에 자리 잡은 영속적인 어긋남(dislocation)이라는 것이다. 외상의 경험은 실재계라는 것이 상징계 또는 사회현실 내부로 결코 흡수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는 언어를 통해 변형될 수 없는 잔여가 언제나 남아있다. 라캉이 ‘X’라고 부르는 이 “초과분(excess)이 바로 실재계”<sup>30)</sup>이다. 환상은 이 실재의 표면에서 생겨나지만 실재계와 조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을 직접 마주칠 수는 없으며, 다만 그것의 불가해한

30) 손 호머, 김서영 역,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6, pp.156-157 참조.

표면인 환상과 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가림없는 알몸뚱이 거리  
 낚싯대 내던지”고 싶은 이와 같은 ‘열대의 나라’란 공간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시적 화자가 “머언 열대의 나라”라고 일부러 말  
 하지 않아도 그곳은 이미 시인의 환상 속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리  
 운 지역”으로 자유가 충만 되어 있고 그 나라에 가면 아름답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환상적 분위기를 제공해 준다. “맘껏 내 청춘을 불태”울 만  
 큼 소통이 가능한 환상적인 공간인 그곳은 “그리운 그리운 지역”으로 화자  
 의 환상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또한 ‘그리운 지역’은 ‘꿈의 공간’으로  
 설정됨으로써 비현실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 받는다. 이는 바로  
 ‘꿈의 공간’을 통해 현실적인 결핍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시에서 꿈의 일종  
 인 “무의식적 소망의 대리적 충족”<sup>31)</sup>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꿈의 공  
 간’은 “야자수·빠나나·코코아·올리브·파인애플”등의 풍성한 열대 과  
 일과 남국의 중심인 “열대의 그 나라”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이다. 이는 이찬의 이국정서에 대한 색채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처럼 미지의 세계 즉 현실성이 결여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이  
 공간에 어딘지 모를 부재 요소가 숨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이찬 시에 나타난 환상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찬 시에서

---

31) 유종호, 『프로이트와 문학』,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pp.199-200. 라이오넬 트  
 릴링은 낭만주의 문학과 정신분석은 일치한다고 말하고 낭만주의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린이, 여성, 농부, 미개인에 대한 열의 있는 관심, 또 성에 대한 혁명적 태도,  
 죽음에 대한 동경, 꿈에 대한 몰두 등의 모두 정신분석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규정한다.

구현되고 있는 환상성은 유토피아적 환상성과 현실 일탈로서의 환상성으로 압당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우회적인 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찬 시에 나타나는 다채로운 시세계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먼저 유토피아 지향의 환상성에서는 현실과의 접점에서 그 고통을 은폐하면서 ‘은실’을 지향하는 유토피아적 환상성을 변형적으로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방적 재현보다는 환상적인 변형을 통해 ‘다른 세계’를 그려냄으로써 이찬은 유토피아적이고 환상적인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은실’의 이미지야말로 일제 강점기의 냉혹한 현실로부터 유리된 가상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엔 동시에 현실의 결여 혹은 폭력적 상태에 대한 우회적, 방법적 비판의 함의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실 일탈로서의 환상성에서는 문학을 두 가지 층동의 산물로 ‘미메시스’와 ‘환상’으로 파악하였다. 전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토피카감과 함께 사건·사람·상황·대상을 모사하려는 욕구라면, 후자는 ‘권태로부터의 탈출·놀이·환영·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독자의 언어 습관을 깨뜨리는 은유적 심상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찬은 암울한 조국의 식민지 현실에서 빠져나와 물의 도시인 베네치아를 무대로 펼쳐지는 오페라 ‘카르멘’의 주인공을 통해 현실을 일탈하려는 환상성을 구현하고 있으나 그곳은 비현실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 받는다. 이는 바로 ‘꿈의 공간’인 ‘그리운 지역’을 통해 현실적인 결핍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시에서 꿈의 일종인 무의식적 소망의 대리적 충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즉 현실성이 결여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은 이 공간에 어딘지 모를 부재 요소가 숨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찬의 시편들은 현재적이고 물리적인 재현을 시도하면서도 다시 과거

로 회귀하거나 잠행하는 반복적인 시작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찬 시의 환상성의 문체는 기이함·망설임 등의 속성은 배제되어 있지만 이찬의 시세계는 그만큼 다채롭다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다. 시대현실에 발 빠르게 기능하는 당대의 현주소를 찾는다면 바로 이찬의 시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 이후 우리는 이찬의 환상시에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문학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한국 현대시사에서 환상시를 논의해야 하는 것은 문학이 미메시스와 환상 모두의 산물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별 작품들이 취하는 모방요소와 환상요소를 동시에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의식으로 환상성을 지닌 시를 창작하는 시인들이 존재하고, 그 작품들이 그 나름의 사회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32)</sup>는 측면에서도 ‘환상시’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李 燦, 『待望』, 風林社, 1937.  
 \_\_\_\_\_, 『焚香』, 漢城圖書株式會社, 1938.  
 \_\_\_\_\_, 『茫洋』, 博文書館, 1940.  
 \_\_\_\_\_, 『화원』, 博文書館, 1946.  
 \_\_\_\_\_, 『쏘련시초』, 1947.  
 李 燦, 『勝利의 記錄』, 『文化戰線』創刊號, 1947.  
 리 찬, 『리찬시선집』, 조선노동편집부, 1958.  
 \_\_\_\_\_, 『태양의 노래』, 조선노동편집부, 1982.  
 이동순·박승희, 『이찬 시 전집』, 소명출판, 2003.

---

32) 박호영, 앞의 논문, p.745.

## 2. 논문 및 단행본

- 고영일, 『환상문학의 이론적 고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1집, 서울대학교 라틴 아메리카연구소, 2000.
- 권혁웅, 『환상: 환상의 영역을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시론』, 문학동네, 2010.
- 김경복, 『한국 현대시에 보이는 환상성의 의미』, 열음사, 1997.
- 김도희, 『한국 전후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응교, 『이찬과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07.
- 김정란, 『김종삼 시 연구: 소리 이미지와 환상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나희덕, 『세대소설론』,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 노철, 『판타지 문학의 타자성과 불확정성』, 문학마당, 2005.
- 노혜경, 『세기말 시의 환상성, 환각과 환멸 사이로 난 좁은 길』, 『오늘의 문예비평』, 1998년 겨울호.
- 라기주, 『김종삼 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2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 문홍술, 『환상문학과 탈근대, 그리고 동일성의 세계』, 시와 사람, 2005.
- 박상수, 『2000년대 한국시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와 전망-환상의 정신분석적 독법』, 『한국문예창작』통권 제11호, 한국문예창작회, 2007.
- 박승희, 『이찬 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호영, 『장만영 시에 나타난 환상성 연구』, 『국어교육』 제113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 석연경, 『이상 시의 환상성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범순, 『이찬론: 현실주의적 흐름과 비판적 낭만성』, 문학사상, 1989.
- 오문석, 『1920~30년대 프로시론의 전개과정』, 『근대시의 경계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7.
- 오생근, 『환상문학과 문학의 환상성-호프만, 발자크, 알리 미쇼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관』, 2002.
- 오현주, 『문학치료에서의 환상성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유성호, 『이찬시의 낭만성과 비극성』, 『비교문학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 \_\_\_\_\_, 『회귀와 환상의 이미지즘: 장만영론』, 한양대학교, 2003.
- 유종호, 『프로이트와 문학』,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윤지영, 『‘환상적인 시’와 ‘환상시’의 가능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2001.

- 윤지영, 「현대시의 두 얼굴, 환상과 모방」, 『포에지』, 2002.
- 이성민, 「김종삼 시의 환상성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 이승하 외, 「현대시의 풍경, 그 다원성의 미학」, 『한국 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
- 이주영, 「오장환 시 연구: 탈식민주의적 저항성과 환상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창민, 「환상시론의 이론적 전제」, 『돈암어문학』 제16집, 2003.
- \_\_\_\_\_, 「한국 현대시의 환상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집, 우리어문학회, 2004.
- 이형권, 「발명되는 감각들」, 『시작』, 2006.
- 임 화, 『세태소설론』, 『문학의 논리』, 서음출판사, 1989.
- 장동석, 「김종삼 시에 나타난 ‘결여’와 무의식적 욕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6집, 창조문학사, 2008.
-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허갑순, 「이찬 시 연구: 시간과 공간인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캐스린,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역, 푸른나무, 2000.
-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 슬라보예 지젝, 대니 노부스 편, 『라캉 정신분석의 핵심 개념들』, 문심정연역, 문학과 지성사, 2013.
- 손 호머, 『라캉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2006.
- 자크 라캉, 맹정현·이수 연 역, 『투케와 오토마톤』, 『자크 라캉 세미나 11권: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
- 푸랑수아 레이몽·다니엘 콩페르, 『환상문학의 거장들』, 고봉만 외 역, 자음과 모음, 2001.

**Abstract**

## A Study on Fantasy in Lee Chan's Poetry

Heo, Gab-Soon

This study focused on fantastic space shown in Lee Chan's poetry and observed poems of exotic fantasy and the fantastic space as a departure from reality. These works were reviewed that tragically express modernistic nature and wandering consciousness of losing home and wandering about. But it was also criticized as 'an escapist attitude' that lacks for critical self-consciousness in the back.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eal secret interaction between reality immanent in fantasy and fantasy by interpreting and analyzing his works.

In the 19<sup>th</sup> century, although fantasy was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ose supporting realist novels, it has occupied an universal position in the flow of a narrative and also taken the place in modern literature. Kathryn Hume claims that fantasy is any departure from consensus reality, an impulse native to literature. In this sense, fantasy can appear as a number of transformations from monster to metaphor.

Although fantastic literature is revealed in Romantic literature in the 1920s in Korea, the context may be found in fantastic poem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r the 1950s and 1960s. In particular, in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one would have no choice but to pursue a departure from repressed and painful reality. In this regard, it cannot be asserted that fantasy appears only in certain times or writers. In other words, fantasy is not a phenomenon limited to some times or writers and is often encountered in several poets' poems about the time of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This study strived to reveal fantasy in Lee Chan's poetry because of a good sentiment toward Utopia that underlies his poetry. Although his attitude

has been criticized as an escape to the aesthetic world that lacks in realistic self-consciousness, the important is that it is the aspect of fantasy his poetry shows. Therefor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Lee Chan's poetry expresses overwhelming weirdness, we can know that a deep and severe pain of a person harbors at the back of miserable reality.

Key Word : Lee Chan, Fantasy, Utopia, Reality.

허갑순

소속 :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강사

전자우편 : hks3319@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

